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시게 <21> 환절기·겨울철 건강관리

예방이 중요...접종 통해 저항력 기르고 외출 땐 체온 신경써야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겨울이구나!’ 싶을 때가 있다. 큰 일교차에 행여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고 깊숙이 넣어뒀던 난방기와 가습기도 꺼내놓을 때가 됐다. 이때 신경써야 할 건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이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산책이나 바깥 활동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건조한 날씨 탓에 호흡기나 피부 질환도 우려된다. 가을 환절기와 겨울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도움말: 송정은 광주동물메디칼센터·말비우 동물병원 원장>

우리집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1 건조한 날씨 피부건조·호흡기질환 주의

야외 활동이 적은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 전염병 노출은 줄어든다. 하지만 건조해진 날씨로 피부 건조증이나 호흡기 질환은 늘어난다.

환절기가 되면 보습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다. 피부건조증은 피부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피부가 붉어지고 거칠어지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긁으면서 피부가 상하고 자주 핏자국이 생기고 심할 경우 진물이 나오기까지 한다.

피부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방을 하더라도 자주 환기를 시켜주고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놓는 등 실내 적정습도 유지가 필수다. 평소 물 마시는 장소 외에 추가로 물그릇을 두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겨울철 목욕은 2~3주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짧게 끝내도록 한다. 목욕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도 좋다.

개월이 어린 강아지들은 찬 공기 때문에 급성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독감이라 불리는 신종플루가 대표적이다.

신종플루는 바이러스 감염인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따른 호흡기 질환이다.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에 증상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안된다. 사람들이 겨울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게 좋다. 처음에는 2회 접종하고 이후로는 일년에 한번이면 된다.

주로 실내생활을 하는 고양이들에게서도 호흡기 질병이 많이 나타난다.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환기에 각별히 신경쓰는 게 중요하다.

#2 눈 내리는 날 가벼운 산책 괜찮아요

어린아이들처럼 강아지들도 눈 내리는 날을 좋아한다. 강아지들은 다양한 색깔을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동체 시력이 발달돼 하얗게 훑날리는 눈송이의 움직임은 잘 보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흥미로운 장난감처럼 받아들인다.

눈 내리는 날 외출한 강아지가 팔짝팔짝 뛰는 것은 발 사려워서라기 보다는 눈송이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흥분하기 때문이라는게 맞는 표현일 것 같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산책은 가능하다. 강아지들은 발바닥 패드가 단단한 피부로 돼 있어서 눈 속에 오래 있지 않은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괜찮다. 굳이 신발을 신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서너차 패딩을 입혀서 외출을 하고 다녀온 후에는 실내에서는 옷을 벗겨주도록 한다. 바깥과 실내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습기로 인해 피부병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말려주고 특히 빙판길 방지를 위해 연화칼슘을 뿌리는 곳도 많기 때문에 외출 후에는 빨리 발을 닦아주도록 한다.



날씨가 춥다고 실내에만 있는 것보다는 보온이 되는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가는 게 반려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광주일보DB>

#3 실내활동 많은 계절 슬개골 탈구·관절 손상 조심

추운 날씨에는 관절 부상에 신경써야 한다. 평소 야외 활동을 자주 하던 반려견들이 추운 날씨에 외출이 줄어들면서 실내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나 관절 손상, 골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놀이 등 실내에서 놀아줄 때는 반려견의 행동반경 안에 미끄럽지 않도록 바닥에 매트를 까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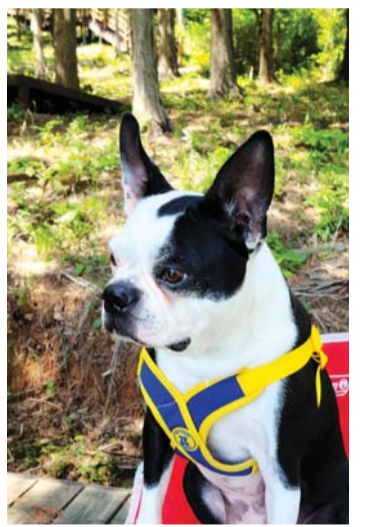
노령견의 경우 근육이 위축되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다.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너무 추운 날에는 외출을 삼가는게 좋지만 산책을 좋아한다면 따뜻하게 옷을 입혀서 나가도록 하고 산책을 짧게 마치도록 한다.

활동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비만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평소 체중의 10% 이상 살이 찌면 관절이나 디스크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하거나 놀이 등을 통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서울개’서 ‘시골개’로...차밭에서 산책해요

열혈무늬가 매력적인 보스턴 테리어 ‘콜라’를 소개합니다. 여섯 살 된 콜라는 ‘서울개’에서 ‘시골개’가 된 케이스예요. 처남이 서울 이태원에서 키우던 강아지였는데 사정상 한 달 동안 데리고 있기로 했다. 결국 평생 함께 할 가족이 된 거죠.



콜라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사철 푸르른 녹차밭과 바다를 마음껏 볼 수 있는 보성입니다. 답답한 우리에서 벗어나 매일 드넓은 자연에서 산책을 하고 있으니, 4년 전 저의 집으로 데려온 게 콜라에게는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보스턴 테리어는 생기발랄하고 굉장히 영리한 견종이라고 하던데 정말 콜라가 스마트 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특히 좋아하는 간식 앞에선 옆드리기, 산책, 운동까지 모든 걸 스스로 잘 합니다.

산책은 자주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4번 씩 사람 통행이 드문 바닷가 모래밭으로 가서 마음껏 뒹굴 수 있게 한다거나 녹차밭 테크길을 산책하며 활동량이 부족하지 않게끔 해주고 있어요. 콜라가 우리 가족이 된 걸 행운이라고 느낄 수 있게 앞으로 노력 많이 할 생각입니다.

<김민수·보성군 보성읍>

※반려동물의 사진과 이름, 나이, 특징, 연락처 등 간단한 소개를 전자우편(yoosarang_love@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 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